

FTA 피해기업·근로자 지원 Q&A

정부는 18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 및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담겨 있어 현재 협상 중인 한미 FTA를 포함한 각국과의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정안에 따르면 산자부와 노동부는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된다.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구조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 FTA로 인한 피해와 기타 피해가 어떻게 구별하나.

▲특정 FTA로 인한 피해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의 증가를 통관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한가.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심각한 피해'의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와 그 밖의 경영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

무역조정 대상업체 '경영컨설팅'

(제조업 관련 운송·에프터 서비스업)

Q:근로시간 단축·실직 근로자는?

A:고용안정센터 통해 수당지급 등 전직·재취업

정하게 된다. - 지원대상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다.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업, 에프터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되며,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부처협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다.

-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에서 일하거나,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수입상품 증가로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가능하다.

- 근로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직 수당 지급이나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 지원받은 기업이 조정계획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 제재할 방안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뒤 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지정을 신청해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기업 소식/

현대상선 30주년 社史발간 배포



현대상선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외 해운업의 환경변화와 역대 최고경영자들의 경영활동을 집대성한 사사(社史) '미래의 길, 바다를 열다'를 18일 발간해 800여곳에 무료 배포했다.

총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현대상선의 사사 1권 '미래의 길'에서는 창업자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등 역대 CEO와 현정은 현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활동을 담은 인물사부터 시대별 경영환경변화와 현대상선의 발전과정을 서술했다.

2권 '바다를 열다'는 컨테이너선 부문과 항만 물류 시설 등 현대상선의 각 사업부문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화보와 함께 현대상선 실무진들이 신규항로 개설, 주요 입찰 및 계약시 겪은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담은 수기로 구성됐다.

임직원 금연·비만 탈출 작전 돌입



삼성중공업이 임직원들의 건강 직장생활을 위해 금연, 비만 탈출 작전에 돌입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금연성공펀드와 비만탈출펀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해 임직원들의 건강 유지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펀드가입 신청을 받은 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9월까지 금연성공펀드와 비만탈출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천473명의 직원이 가입해 681명이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함으로써 46.2%의 성공률을 기록했던 금연성공펀드에는 올해 480명이 가입했다.

삼성중공업측은 올해 금연성공펀드를 통해 참가자의 50% 이상이 금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직원 1인당 펀드 가입비는 3만원으로 3개월간 금연 성공시 5만원, 6개월 성공시에는 10만원을 각각 상품권으로 지급받게되며, 금연에 실패한 직원의 가입비는 전액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된다.

장애우들에 '사랑의 택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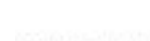


대한통운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 가족들이 무료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택배' 행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전화(1588-1255)로 택배를 의뢰하면 대한통운 택배 사원이 방문해 장애인 등특증을 확인한 후 무료로 택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통운은 2001년부터 '사랑의 택배' 행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42개 지점을 중심으로 환경기화 및 복지시설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 택배 관계자는 "장애우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들에게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신혼부부 승객 전용카운터 오픈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말에 인천공항을 통해 신혼여행을 떠나는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 기간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 고급 카페 주단길과 웨딩 꽃장식이 설치된 8개의 신혼부부 전용카운터를 마련해 결혼식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신혼부부 전용카운터에서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권 추첨 및 좌석 업그레이드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모든 신혼 여행객에게 한국관광공사 명세제 할인권과 인천공항내 식당 할인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공행진 계속... 한국경제 '휘청'

유가 배럴당 70달러시대

美 경제 버블·원-달러 환율 하락

내수·수출 등 압박...경기 불안국면

국제유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뜰이나 불안정한 한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계속 내려오고 있으며 미국경제도 부동산버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다른 대외변수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 국내에서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폭로전이 본격화되고 있는가 하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국내외에서 악재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국제유가 70달러 시대. 당분간 강세전망=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도입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17일 배럴당 64.71달러를 기록,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도 작년 8월3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9.84달러를 넘어 70.29달러까지 치솟았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70.60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70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에서 세계 석유제품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최근 3주새 1천만배럴이 줄어 들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국제유가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돼 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내수·수출·소비 압박=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는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세계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안한 경기상황= 게다가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에서 소비자대지수는 103.4로 전월의 103.8보다 0.4포인트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월평균 소득 400만원이상 계층의 소비자대지수는 1월에 111.6이었으나 2월 111.3, 3월 106.9로 내려와 고소득자의 소비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저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국제유가는 외생 변수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유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유가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저에너지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달 25~26일·300명 참석

중장기 협력 방안 등 논의

한·일 경제인 '삿포로 회동'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측의 계획이 알려진 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의 중장기 경제인들이 회동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가 오갈 지 주목된다.

한일경제협회(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는 다음달 25~26일 일본 삿포로(札幌)시에서 '21세기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한일 역할'을 주제로 '제38회 한일경

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한일경제협회 한국측 회장인 조 회장과 김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용구 중기협 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등 세계 원로들을 비롯해 주요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일본측에서도 세토 유조 한일경제협회 일본측 회장과 야마구치 노부오 일본 상

공회의소 회장 등과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업체 경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국의 참석자는 모두 300여명이 이를 전망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방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이해와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게 된다고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봄·여름 땀냄새 방지하세요 기온이 높아지는 봄, 여름철을 앞두고 스칸디나비아브랜드인 '니베아'사 모델들이 18일 서울 압구정동 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땀냄새 방지 제품인 데오드란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취업자 635만8,000명

노동력 중심 30대→40대로 이동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한국 노동력의 주력이 30대에서 40대로 바뀌었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 2천284만8천명 가운데 40~49세는 635만8천명으로 27.8%를 차지해 각 연령대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 30~39세는 612만2천명으로 26.8%를 차지했다.

30대와 40대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3월 기준으로 2000년에는 30대가 29.4%로 40대의 24.7%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30대와 40대의 격차는 ▲2001년 29.0%, 25.8% ▲2002년 28.3%, 26.4% ▲2003년 28.4%, 27.3% 등으로 갈수록 좁혀졌다. 이어 ▲2004년에는 27.

8%, 27.5% ▲2005년에는 27.1%, 27.6%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올해에는 40대가 우세를 굳혔다.

또 50대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 3월에 26.8%로 작년 같은 달의 25.5%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갔다.

3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에 22.7%였던 50대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2001년 22.6%, 2002.2003년 각 23.3% 등을 나타내다 2004년 24.5%로 올라갔고 작년과 올해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20대 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 18.8%에서 올해에는 17.7%로 떨어졌다. 20대 비중은 2000년에 21.4%에 이르렀으나 2001년 20.9%, 2002년 20.5%, 2003년 19.9%, 2004년 19.3% 등으로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계 상품수출 총액 10조달러 돌파

전세계의 상품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 상품 수출 총액은 10조3천930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조달러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상품 수입액은 10조7천억530억달러, 세계 교역액은 21조1천460억달러였다.

수출액은 독일,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9천707억달러, 9천43억달러, 7천620억달러, 5천958억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천844억달러로 2004년과 마찬가지로 12위를 차지했으며 전세계 수출 중 한국의 수출 비중은 2.74%로 2004년의 2.78%에 비해 0.04% 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의 수입은 2천612억달러로 13위, 교역액은 5천457억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 수입, 교역규모 순위는 모두 2004년과 동일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KBSJOB	[광주]금호생명 콜센터 문의고객(비문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0	02-518-9900
☎한진기공	기계설계사 지원	고졸/경력1년	2,000~2,200	04/20	062-953-1642
전남대학교 재료강도연구실	[기계]시스템공학부석박사급 연구원	대원졸/경력무관	3,000~3,200	04/20	062-530-1668
☎에이원컨설팅	건설현장 시공 및 관리업무지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527-7007
글로벌공통인(주)	광고기획/회계/인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973-6114
삼성생명	[삼성생명(주)] 법인 영업 전담 GFC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1-247-0125
송애디자인	편집디자인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22	062-525-7955
☎대한에듀텍	영업관리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22	062-511-8881
☎화인코리아	[지입/환경/영업]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1-330-4520
대한생명보험(주)	2006년 금융전문 여사원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4/25	011-9620-6805
☎유림건설	건설업 전반적인 관리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365-8118
☎오뚜기	자체발전(ERP)담당 여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30	062-946-1114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